

한자용어와 의학전문용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하나?

지 제 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인사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2012년 10월 22일,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이하 추진회)'가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고유어는 25.5%에 그치는 반면 한자

어는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어휘 중 한자어는 57%, 고유어는 25%, 외래어는 6%를 차지한다"며 추진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글단체들은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들이 굳이 한자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수십 년간 추진되어온 한글전용정책이 단순문맹(單純文盲)을 퇴치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대다수 국민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더 이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문맹(實質文盲)'을 양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국제연합 산하 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이나 대만은 한국보다 문맹률이 낮다. 비록 한자가 익히기 어려운 글자이긴 하지만, 문해(文解, literacy)의 비율은 초등교육에 의한 것이지 한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자나 의학자가 사용하는 과학전문용어는 어떻게? 이들 용어의 상당 부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과학기술한림원발행 과학기술용어집과 대한의사협회발행 의학용어집 1~3판을 분석해보면 전문과학기술용어의 90% 그리고 의학용어의 95%는 한자어다. 나머지 5~10%도 고유어보다는 영어가 근원인 외래어가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을 국립국어원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학용어를 포함한 전

문용어의 정비에 앞서 국립국어원은 현대과학용어의 탄생과정에서 순 우리말이 한 역할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문용어도 국어다. 국어정책은 의학용어와 전문과학기술용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국립국어원에서 처리해야 할 것은 한자병용(漢字併用) 문제다. 한자를 병용하기로 결정하면, 많은 전문용어가 그 뜻에 따라 차질 없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두 가지 용어를 익혀야 하는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전문용어는 한자를 응용하여 만들고, 이미 있는 한자용어는 일본식 혹은 중국식 용어표현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물리학, 화학, 의학 분야에서 시도했던 전문용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상처만 남겼다. 다시 원래 쓰던 한자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시행착오라고 하기엔 희생이 너무 컸다. 가장 큰 피해는 갈팡질팡하는 사이 우리말 용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 우리말이 현대 과학용어에 얼마나 적합하지 못한가를 늦게라도 깨닫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문 과학 용어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순 우리말로 바꿀 수가 없다. 중력(重力), 성층권(成層圈), 산화/환원(酸化/還元), 기계(機械), 아열대(亞熱帶), 항상성(恒常性), 평형(平衡), 천식(喘息), 대사(代謝), 신경(神經), 동맥(動脈) 등 각 분야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이러한 한자전문용어를 어떻게 토박이말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설명하는 식으로 길게 바꾼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의 우리말 용어 정비라는 것이 원어(原語)를 해석한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이 만든 한자어에 대한 우리말 뜻풀이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영어의 'parathyroid gland'는 일본의 '副甲狀腺'이다. 이를 '부갑상선'이라고 쓰다

가 용어 준비를 한다고 '부갑상샘'이라고 했다. '내분비선'을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para'는 '부' 즉 accessory라는 말이 아니고 '옆'이나 '근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선'을 '샘'으로 고치는 것에만 급급하였다. 'Accessory thyroid'는 갑상선 옆에 팔려 있는 작은 결절로 정상인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갑상선'이다. 일본도 늦게나마 이를 깨닫고 부갑상선 대신 방갑상선(傍甲狀腺) 혹은 '상피소체'로 고쳐 쓰고 있다. 비슷한 예로 'adrenal gland'에 해당하는 '부신'(副腎)도 사실 잘못된 것인데 정비하지 않고 있다. 일본, 중국 모두 '선'대신 '신상체(腎上體)'를 쓰고 있다. '부신'은 'adrenal gland'가 아니고 'accessory kidney'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용어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물론 오랫동안 써오던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지는 논의를 거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무엇이 잘못 쓰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전문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비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한자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말 병용 없이 바로 한자로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인들이 라틴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데 영어를 배우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듯, 우리도 정비 작업을 할 때 생각을 넓혀 한자를 이용해서도 자유로이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에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 정신분열병(精神分裂病)을 조현병(調鉉病)으로 간질(癲癇)을 뇌전증(腦電症)으로 정비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북한이 한자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전문용어를 토박이말로 바꾸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도 한글전용이라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나의 주장은 의학용어를 우리말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 그리고 각 전문학회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의학용어를 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의학계의 노력은 다른 치의학, 수의학 등 인접분야는 물론 다른 과학 분야에 모범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비한 의학용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식 한자용어인 오심(惡心)(nausea)을 '구역'으로, 이학적검사(理學的檢査)(physical examination)를 '진찰'로, 마진(麻疹)(measles)을 '홍역'으로, 적리(赤痢)(dysentery)를 '

이질'로, 전간(癲癇)(epilepsy)을 '간질'로 그리고 결체조직(結締組織)(connective tissue)을 '결합조직'으로 고쳤다. 또 논문을 작성할 때도 고안(考案)(discussion)을 '고찰', '보시한다'를 '보인다'로 고치는 등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말 의학용어를 제정·정비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한글 전용을 고집하면 의학용어의 표준화와 통일을 지연시킨다. 결국 국제화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한글과 한자를 조화시켜 우리말 의학용어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전문용어는 전문가만 정비할 수 있다. 이는 국어학자들의 몫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전문용어를 일차 정비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여러 분야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원 용어위원회는 지난 6년간 4개, 3개 혹은 2개 이상의 과학기술분야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선택해 정비를 했는데 이 때 포함된 용어가 약 5만 개다. 이중 약 1/3, 즉 1만5천 용어 정도는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의학계 또는 인문사회계에서도 쓰는 용어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립국어원에서 고시해 표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부영역까지 들어가면 전문가가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준화가 불가능하다. 세부전문용어는 대부분 영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국어학자들이 모여 정비하는 일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요약컨대, 의학용어에서 한자는 영어의학용어의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차지하는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자의 병기 없이도 익숙해진 용어들은 교과서나 논문 등에서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병기 없이 한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학용어집이나 의학용어사전 등 자료를 생산하는 원본에는 모든 용어에 대응하는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 또 새로운 의학용어를 만들 때 한자를 활용해야 하므로 의학자들은 평소 한자에 대한 지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헌법소원은 역사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자신들이 전공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협한 판단을 한다면 우리나라 과학이 설 땅은 점점 좁아진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재의 상태로 방치하면 우리말 전문용어는 영원히 표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문정책과 같은 배를 타고 말이다.

회원 현황

2013년도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64명의 종신정회원과 324명의 임기정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분회 별, 전공분야별 회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분회	분과	종신정회원 수		임기정회원 수		정회원 수	
1	생리학	1	2	7	21	8	23
	생화학분자생물학	-		8		8	
	약리학	1		6		7	
2	기생충학	1	4	4	28	5	32
	미생물학	1		5		6	
	병리학	1		11		12	
	해부학	1		8		9	
3	법의학	-	1	2	11	2	12
	예방의학	1		8		9	
	의사학	-		1		1	
4	가정의학	1	24	3	100	4	124
	내과학	14		52		66	
	소아청소년과학	3		16		19	
	신경과학	1		8		9	
	재활의학	2		5		7	
	정신과학	2		10		12	
	피부과학	1		6		7	
5	비뇨기학	1	21	7	99	8	120
	산부인과학	3		15		18	
	성형외과학	1		6		7	
	신경외과학	5		10		15	
	안과학	-		10		10	
	외과학	9		15		24	
	이비인후과학	1		10		11	
	정형외과학	1		17		18	
	흉부외과학	-		9		9	
6	마취통증의학	2	8	16	55	18	63
	방사선종양학	-		5		5	
	산업의학	-		1		1	
	영상의학	3		18		21	
	응급의학	2		4		6	
	진단검사의학	-		9		9	
	핵의학	1		2		3	
7	간호과학	2	4	1	10	3	14
	보건학	-		1		1	
	약학	-		3		3	
	영양학	-		3		3	
	치의학	2		2		4	
합계		64		324		388	

집행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제5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집행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임기는 3년(2013년 2월~ 2016년 1월)이다.

집행이사회

직위	성명	소속	전공과목
회장	남궁성은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
부회장	임정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제1분회장	안영수	연세의대	약리학
제2분회장	조동택	경북의대	미생물학
제3분회장	임현술	동국의대	예방의학
제4분회장	이재승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학
제5분회장	최황	서울의대	비뇨기과학
제6분회장	장성호	고려의대	마취통증의학
제7분회장	최명애	서울대간호대	간호학
감사	박경아	연세의대	해부학
감사	박귀원	서울의대	외과학
집행이사	김진	가톨릭의대	해부학
집행이사	정남식	연세의대	내과학
집행이사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전공과목
위원장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위원	강종명	한양의대	내과학
위원	김강현	국립의료원	신경외과학
위원	김석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위원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학
위원	손승국	연세의대	외과학
위원	송지영	경희의대	정신과학
위원	지제근	서울의대	병리학

정책개발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전공과목
위원장	임태환	울산의대	영상의학
위원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위원	박형욱	단국의대	예방의학
위원	배종면	제주의전원	예방의학
위원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위원	안형식	고려의대	예방의학
위원	이영성	충북의대	의료정보학및관리학
위원	정승은	가톨릭의대	영상의학

회원인사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전공과목
위원장	지제근	서울의대	병리학
위원	김세철	중앙의대	비뇨기과
위원	노영무	고려의대	내과학
위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위원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
위원	이정용	가톨릭의대	병리학
위원	지현숙	울산의대	진단검사의학

재정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전공과목
위원장	지훈상	연세의대	외과학
위원	남궁성은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
위원	윤동섭	연세의대	외과학
위원	이철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위원	이태훈	가천의과대	외과학
위원	정남식	연세의대	내과학
위원	천명훈	가톨릭의대	해부학

학술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전공과목
위원장	최병인	서울의대	영상의학
위원	김선희	서울의대	외과학
위원	김호근	연세의대	병리학
위원	박근철	성균관의대	내과학
위원	박종완	서울의대	약리학
위원	유기환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학
위원	조양혁	가톨릭의대	생리학

의학연구수준평가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전공과목
위원장	서창욱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위원	김주환	서울의대	의료정보학
위원	박정선	산업안전원	산업의학
위원	서진석	연세의대	영상의학
위원	이수곤	연세의대	내과
위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위원	한준구	서울의대	영상의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재정위원회 소개 및 활동현황

지 훈 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재정위원장, 차의과학대학교 의무부총장,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 兼 분당차병원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재정위원회는 한국과학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존립과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마련 및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재정 확보 방안 마련, 협력회원 모집 및 관리,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모금 활동이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주요 업무성과로는 먼저 2010년 협력회원 가입제도를 정립했다. 협력회원제를 규모별, 기여도별 등급 회원제로 만들고 개인은 ‘Honorary Members’, 기업은 ‘Patron Members’ 라는 명칭을 확정했으며 회원가입비 규모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개인 협력회원(Honorary Members, 명예회원)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명예회원 유치에 나름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공과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의학한림원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활성화된 타 한림원의 추진사업, 예산규모, 지원금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재정확보의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재정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2년은 명예회원 신설에 관한 정관 및 규정 개정을 확정하고 협력회원들의 소속감 정립을 통해 한림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재정 확보를 위한 ‘명예회원 초청간담회’ 등

의 홍보 활동도 적극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의 연회비 납부를 위해 정기적인 공문 발송으로 누락 회비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우리 재정위원회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의학한림원의 더 큰 위상정립과 도약을 위해서는 아직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열악한 상태이다. 이에 재정위원회는 더욱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회원 선출기준의 재정립으로 회원 저변확대를 통한 재정 증대를 꾀할 것이다. 현 회원 가입절차 및 추천절차 등 회원선출 기준을 개선하여 다방면의 뛰어난 회원들을 보다 많이 유치 하고 특히 우수하고 젊은 회원들에게도 의학한림원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회원인사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둘째, 기관단체 협력회원 및 명예회원 유치를 본격화하겠다. 기업, 공공건강보험회사, 대형병원, 대학과 같은 기간단체들의 명예회원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자문, 정책응역사업 등의 협력으로 의학한림원의 발전과 함께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다양한 기획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이다. 포럼중심의 출판사업 등을 통해 학술과 정책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학한림원 홍보는 물론 국민건강증진 확대와 재정확보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각 분과 학회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통해 재정적 지원에 대한 효율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회원 동정



김여갑 (임기정회원)

제39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상 학술상 수상

김여갑 회원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1회 졸업생으로 1987~1988년 미국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at Dallas,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유학하였고, 20권의 전문서적 발간, 14권의 원서를 번역했으며, 국외학술지에 8편, 국내학술지에 21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등에서 학술대회장 및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회장 등 중추적인 활동과 대한치의학회 회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담당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아시아 치과마취과학회의 발전에 기여, 태국 및 인도네시아 해외의료봉사, (주)의학 유관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일본 오사카 치과대학교와 오우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경희치대학장과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현철 (임기정회원)

김현철 회원은 지난 3월7일 대구 효성 가톨릭대학 음대 세미나실에서 한국 르네상스음악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김현철 회원은 제2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음악, 특히 르네상스 음악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하게 되었음을 감사하였으며, 1997년 <르네상스음악의 즐거움>이란 저서를 비롯하여 2007년에 다시 <르네상스음악으로의 초대>와 <르네상스음악 명곡 명반>을 출간한 바 있다.



박경아 (임기정회원, 감사)

박경아 회원은 헌신적 교육과 지도로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동료교수들에게 귀감이 되며 학생들을 참된 의사와 의학자로 이끌어주는 공로를 인정받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여하는 제 1회 알렌의 학교육상을 수상하였다.



박성수 (임기정회원)

의협 의학지식향상위원회 위촉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인 박성수 회원은 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지향위) 위원장에 위촉됐다. 지향위는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지식을 홍보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의협 내 기구이며, 의협 임원과 비의료계인사 15명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선경 (임기정회원)

선경 회원은 제41회 보건의료의 날 정부포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옥조근정훈장을 포상받았다.



심찬섭 (임기정회원)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병센터의 심찬섭 회원은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의 Editorial Board, 총 10명의 Committee Member의 일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년간의 임기를 맡았다. 2013년 5월 18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 미국 Orlando에서 열리는 Digestive Disease Week에서 개최되는 편집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여일 (임기정회원)

이여일 회원은 작년 8월 31일 전남대학교의과대학 정년하고, 금년 1월 30일자로 화순전남대병원인근 암질환협력병원인 무등산생태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중에 있다.



임정기 (임기정회원, 부회장)

임정기 회원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COEX에서 제3회 세계흉부영상의학회 (WorldCongressof ThoracicImaging)의 Congress President로서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세계흉부영상의학회는 매 4년 마다 개최되며, 1,2회는 유럽에서 개최된데 이어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고, 차기 학술대회는 미국으로 정하여져 있다. 4월 25일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1,000여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학술대회에 1400명 정도의 흉부영상의학 및 관련 학자들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하여 흉부질환 관련 세계적인 의학자들의 83개의 강의, 457개의 논문 및 전시 발표 등을 통하여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젊은 의학자들에게 학문적 동기유발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장성구 (임기정회원)

1. 대한의사협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 성구 회원은 제65차 대의원총회(2013년 4월 28일 개최)에서 대한의사협회 2012 회계년도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전후반 9일간 실시하여 그 결과에대한 보고를 마쳤다.
2.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협정 체결에 따라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연구 사업단” 단장에 선임 되었다.
3. 조선말 화서학과 유학자인 장 석인 선생에 대한 “晚樂軒 張 錫寅 評傳”을 4년간의 노력 끝에 방대한 참고문헌을 고찰하여 2013년 초에 출간하였다. 책은 도서출판 발인(서울)에서 출판하였고 367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장 석인 선생의 학문적 족적과 항일 의병지원 그리고 빈민구제 사업 뿐만 아니라 민락헌 후예들의 사회 활동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채종일 (임기정회원)

- 2분과 채종일 회원은 2013년 5월부터 임기 2년의 기초의학협의회(전국 41개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수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기초의학협의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5월 말에 전국에서 기초의학자와 대학원생 등 1,500여 명이 모이는 기초의학 학술대회를 주최(주관학교는 매년 변동)하고 있다.



최명애 (임기정회원, 제7분회장)

1. 2013년 2월12-13일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The 16th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Conference에서 “Bionursing research on muscle atrophy” 에 대해 구두 발표하였다.
2. 2013년 3월 19일에 일본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 에서 개최된 The 15th Research Exchange Seminar에서 “Effect of exercise on recovery of muscle atrophy induced by Parkinson's disease” 에 대해 구두 발표하였다.

신정순 (종신정회원), 김세주 (임기정회원), 강성웅 (임기정회원), 방문석 (임기정회원)



-장애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재활의학회가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 보호 및 재활의료 전달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4월 12일 국회에장애 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과 개최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장애 재활 및 장애인 건강관리 문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애건강관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행사안내

한국희귀질환재단 창립 2주년 기념 「사랑의 릴레이-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축제

한국희귀질환재단 창립 2주년과 “사랑의 릴레이-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제 3편 출판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사랑의 릴레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유관의료기관 관계자 및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장소 : 서울 시민청 지하 1층

제31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일반 국민들이 널리 쓰거나, 전문용어라도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달라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의학 관련 전문용어를 선별하여, 이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을 거쳐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용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31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는 '우리나라 의학용어 정비의 일반 원칙'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6월 26일 오후 3시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주제 : 우리나라 의학용어의 제정과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의 정비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정비원칙

주제발표 : 지제근 교수 (서울의대 병리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

지정토론 : 김선철 연구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송지영 교수 (경희의대 정신과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

김주한 교수 (한양대의대 신경과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

제11회 화이자의학상 수상 후보자 공모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대한민국 의학발전 및 인류건강복지에 기여한 의학자를 발굴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금년도 '화이자의학상(Pfizer Medical Research Award)'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화이자의학상은 의학분야 우수 논문에 대하여 총 2명(기초의학상 1명, 임상의학상 1명)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3. 6. 1(토) ~ 2013. 7. 31(수)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2013. 7. 31(수)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화이자의학상 운영위원회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전화 : 02-795-4030, 팩스 : 0502-795-4030, 전자메일 : namok@kams.or.kr

제출서류

1) 신청서(명함판 사진 첨부) 1부. (별도 양식)

2) 신청자 이력서 1부. (별도 양식)

3) 추천서(관계기관장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 1부. (별도 양식) - 관계기관은 소속 학회나 근무 기관을 말함.

4) 수상대상 연구논문 1편 - 올해는 2011. 8. 1 ~ 2013. 7. 31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해당됨.

5) 관련 연구논문 1편 이상(최대 5편).

- 해당 전공분야의 논문을 모두 포함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으로 함.

- 올해는 2008. 8. 1 ~ 2013. 7. 31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해당됨.

6) 연구 논문 목록 (별도 양식)

시상일 및 장소: 2013. 11. 6 (수) 오후 6시 조선히텔 오키드 룸

※ 신청서, 이력서, 추천서 양식, 연구논문 목록 양식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www.namok.or.kr)과 한국화이자제약(www.pfizer.c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고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 매체로서 의학 진흥과 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대변지입니다. 보다 활성화 되고 폭넓은 여론의 광장으로서는 명실상부한 뉴스레터 편집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발 행 일 : 연 4회(3월/6월/9월/12월) 발간

· 접 수 처 :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편집실

전화 : 02-795-4030 팩스 : 0502-795-4030 e-mail : namok@kams.or.kr

· 투고내용 : 제언, 회원 근황, 행사안내, 기타 홍보사항

· 원고접수 : 수시접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9호

발 행 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Tel. (02)795-4030 Fax. (0502)795-4030

발 행 인 | 남궁성은 | 편 집 인 | 김 진 | 인 쇄 | 아람에디트 Tel. (02)2273-2497